

사회부과적 완벽주의가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자기낙담과 정서표현 양가성의 이중 매개효과*

이 해 령

박 은 영[†]

대구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석사졸업생

교수

이 연구는 사회부과적 완벽주의가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낙담과 정서표현 양가성의 이중 매개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대학생 356명의 자료를 SPSS 22.0과 AMOS 22.0를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부과적 완벽주의는 자기낙담, 정서표현 양가성, 대인관계문제와 정적 상관이 있었다. 둘째, 사회부과적 완벽주의가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낙담과 정서표현 양가성이 이중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정서표현 양가성의 하위요인은 서로 다른 대인관계문제 유형에 영향을 미쳤는데, 자기방어적 양가성이 관계관여적 양가성보다 대인관계문제에 부적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시사점과 제한점, 그리고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대인관계문제, 자기낙담, 정서표현 양가성

* 본 연구는 2019년 대구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석사학위 논문을 수정 및 보완한 것이며, 한국임상심리학회 주최 2019년 봄학술대회에서 포스터로 발표되었음.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박은영 / 대구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 (38430)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하양로 13-13 / E-mail: eyp0202@cu.ac.kr

대학생은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접어들면서 친밀한 대인관계 형성이라는 적응 과제를 직면하게 된다. 초기 성인기에 해당하는 대학생들은 새로운 환경에서 친구, 연인 등 다양한 타인과 관계를 맺게 되는데, 이때 친밀하고 효율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면 고립감과 공허감 등의 심리적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권석만, 1995).

Sullivan(1953)은 대인관계가 인간의 발달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고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개인의 독특한 자아가 형성되며 친밀감과 애정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자신이 기대했던 욕구가 좌절되면 대인관계에서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 실제로 2018년 2월 전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심리적 위기 실태를 조사한 결과 73.7%의 학생이 학업과 관계 적응에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응답하였다(오혜영, 2018).

대학생들에게 대인관계 형성은 중요한 과업이나 쉽지 않으므로,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에 대한 연구들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왔다.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 중 특히 완벽주의 성향은 대인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왔고, 그중에서도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성향을 지닌 사람들이 다른 완벽주의 차원을 지닌 사람보다 대인관계 어려움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옥경, 2001). 사회부과적 완벽주의(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SPP)란 의미 있는 타인이 자신에 대해 비현실적으로 높은 기준을 부여하고 자신을 엄격하게 평가하며, 그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자기를 거부할 것이라는 신념을 지닌 완벽주의다. 상당수의 대학생들은 성인

이 되면서 부모나 친척, 주변 사람들로부터 많은 기대를 받게 된다(권석만, 1995).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성향을 지닌 사람이 외부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려운 동기나 목표를 설정할 경우 대인관계에서 작은 실패 경험도 확대 해석함으로써 자신이 가치 없다고 느끼고 대인관계에서 움츠러지게 되며 더 큰 좌절에 빠지게 된다(방혜연, 2010). 이처럼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자는 의미 있는 타인이 자신에게 비현실적인 높은 기준을 부과한다고 지각하고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느낄 수 있으며 대인관계에 있어서 타인과의 신뢰로운 관계 형성에 대한 결핍으로 인해 사회적 상황을 회피하거나 부적절한 대인관계를 맺을 수 있다(전명임, 2009). 즉, 만족스런 대인관계를 통해 긍정적인 자기 및 타인 표상을 형성하게 되면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게 되는 반면, 그렇지 못한 경우엔 대인관계에서 불만족과 좌절을 경험하므로 심리적 장애의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다(권석만, 김지영, 2002). 또한 대인관계에서 개인이 수용 받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지속될 경우 대인관계에서 친밀감을 경험할 가능성이 낮아지고 보다 깊은 관계를 형성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처럼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성향을 지닌 사람들이 보다 많은 대인관계를 겪는다는 것은 선행연구를 통해서 확인되어져 왔다. 그러나 개인이 경험할 수 있는 대인관계문제 양상이 다양함에도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대인관계문제는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사람들에게 향함’은 순종적인 경향을 지닌 사람들로 다른 사람들

로부터 인정과 관심을 받으려는 욕구가 강해 타인의 비판이나 거절을 두려워하고 상대방의 기대에 따라 행동하려고 노력하는 특성이 있다. 두 번째로 ‘사람들에게 맞섬’은 공격적인 경향을 지닌 사람들로 다른 사람들을 적대적이고 신뢰할 수 없는 대상이라고 여기는 특성이 있다. 세 번째로 ‘사람들에게 멀어짐’은 고립적인 경향을 지닌 사람들로 다른 사람과의 친밀한 관계를 불편해하고 혼자 있기를 선택하며 다양한 삶의 문제로부터 회피하려는 특성이 있다(이희경, 윤인, 이해라, 조한익, 2006). 이처럼 대인관계 행동과 문제 양상은 복잡하고 다양하다. 따라서 성인기 초기 발달단계에서 친밀한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적응 과제를 직면한 대학생들의 대인관계문제를 이해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대인관계문제를 유발하는 근본적인 심리적 요인을 밝혀낼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대인관계문제의 관계에서 자기낙담과 정서표현 양가성에 주목하고 매개변인으로서의 역할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완벽주의 성향이 높은 사람의 경우 높은 기대수준에 못 미치는 자신을 비난하여 스스로 낙담하고 포기하는 경향을 보인다(정인철, 2012). 특히 자기낙담을 경험할 경우 부족한 부분이나 불리한 것을 찾는데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어(노안영, 정민, 2007), 타인에게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을 두려워하고 긍정적인 평가와 인정을 갈망하여 대인관계 상황에서 열등감과 소외감을 잘 느끼며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 무엇보다 낙담한 사람은 ‘자신이 인정받을 때만 가치가 있다’는 잘못된 신념에 기초한다(Lingg & Wilborn, 1992)는 점에서 본 연구자는 자기낙담을 인지적 변인으로 보았다. 심리적 부적응에 대한 인지이론가들과 인지치

료자들(Beck, 1967; Beck, Rush, Shaw, & Emery, 1979; Eills, 1962; Mahoney, 1974; Meichenbaum, 1977)은 인지적 신념이 개인의 부적응적인 감정과 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Beck (1983, 1984)은 타인으로부터의 애정, 인정을 중요시하는 의존성과 관련된 역기능적인 신념을 가진 사람들은 대인관계에서 타인의 평가에 지나치게 신경 쓰고 예민해하며 타인의 거부와 상실에 상처받기 쉽다고 주장했다. 역기능적 신념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사람일수록 타인에게 과도하게 의존적이고 순종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고 그들로부터 거부되고 버려질 것에 대한 두려움을 지니게 된다(권석만, 1995). 특히 타인과의 관계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되어 거절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지닌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한다(김옥경, 2013). 이러한 역기능적 신념은 사회적인 자극에 대해 자신을 위협하는 자극으로 인식하여 정서표현에 대한 어려움을 초래한다(이주희, 서은숙, 2019). 정서표현에 대한 역기능적인 태도는 자신의 자발적인 표현 욕구와 갈등을 유발한다(Gross & John, 2003; Mongrain & Vetteese, 2003). 자기낙담과 정서표현 양가성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는 드물지만 앞서 언급된 관련 연구를 통해 자기낙담이 역기능적인 신념에 기초하고 있고 낙담한 사람들의 특성상 타인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개인의 솔직한 정서표현에도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실제로 국내 연구에서 자기낙담을 하는 사람들은 역기능적인 신념에 몰두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타인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유발하여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는데 갈등을 초래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민지현, 이아라,

2015). 특히 정서표현이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란 기대가 강할수록 개인은 솔직한 표현을 억제하며 정서표현에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최해연, 민경환, 2007). 이처럼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싶은 욕구가 있지만 이를 억제하고 갈등하는 것’을 정서표현 양가성이라 하는데(King & Emmons, 1990), 정서 경험이나 표현을 억압하는 것은 심리적, 신체적 부적응을 유발할 수 있다(Pennebaker, 1985). 또한 정서표현에 대한 갈등과 억제를 많이 경험할수록 문제 중심적 대처보다 정서 중심적 대처나 미숙한 방어를 보다 많이 사용한다고 보고되었다(이승미, 오경자, 2006; 이주일, 황석현, 한정원, 민경환, 1997; 최해연, 2005; 한정원, 1997).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자들이 자신에게 부과된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지 못한 나머지 자신을 비난하여 스스로를 낙담시키게 되고 결국 자신감을 잃고 정서표현에 갈등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 예측해 볼 수 있다.

정서표현에 대해 갈등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면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타인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안선경, 정여주, 2016). 이러한 정서표현에 대한 갈등은 대인관계에서 의사소통의 명료성을 저해하는데, 이는 대인관계적 상황에서 왜곡된 지각을 유발시켜 원활한 대인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다(Mongrain & Vettese, 2003). 국내 연구에서도 정서표현에 대한 갈등이 높은 대학생일수록 대인관계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민지현, 이아라, 2015; 안선경, 정여주, 2016; 정경아, 2015; 정혜진, 2014; 한경희, 2012).

한편, 최해연과 민경환(2007)은 한국의 문화적 맥락을 고려해 정서표현 양가성을 정서표현의 억제 동기에 따라 ‘자기방어적 양가성’과 ‘관계관여적 양가성’의 두 가지 측면으로 구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시하였다. 먼저, 자기방어적 양가성은 방어적 동기를 가진 정서표현 양가성으로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는데 있어 초래될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두려움, 정서표현에 대한 불능감을 내포하고 있다. 반면, 관계관여적 양가성은 관계를 고려하거나 체면을 유지하려는 동기를 가진 정서표현 양가성으로 의식적인 행동이나 표현의 통제, 관계민감성에 신중함을 기하는 특성을 지닌다. 이러한 구분을 고려해 볼 때 정서표현을 억제하는 동기적 속성이 자기방어적인지 관계관여적인지에 따라 개인이 경험하게 되는 대인관계 문제 양상 또한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자기방어적 양가성은 타인에게 적대감을 가지고 자신의 표현을 망설이는 부적응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어 대인관계에서 문제를 초래할 위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관계관여적 양가성은 상황과 상대방을 고려하여 정서를 표현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보호하려는 적응적 측면을 지니고 있어 대인관계에서 직접적인 갈등 양상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안선경, 정여주, 2016; 지서현, 2016). 이렇듯 개인의 정서를 표현하는 방식은 그 개인이 맺는 관계양식의 주요한 특성으로 볼 수 있으며, 나아가 그 관계의 질을 결정하게 되며 개인의 적응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각 개인의 정서를 표현하는 방식은 그 개인이 맺는 관계양식의 주요한 특성으로 볼 수 있으며, 나아가 그 관계의 질을 결정하게 되며 개인의 적응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그러나 정서표현 양가성의 두 가지 하위요인이 각각 어

편 대인관계 행동과 문제 양상을 보이는지에 대해 경험적으로 규명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자는 정서표현 양가성의 두 하위요인이 대인관계문제 유형에 미치는 영향을 각기 살펴보고자 하였다. 최해연과 민경환(2007)의 연구에서 정서표현 양가성의 하위요인을 나누어 적응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신체화, 대인간 민감성, 적대감, 우울, 불안 등 대부분의 심리증상이 자기방어적 양가성에 의해 설명되었다. 특히 자기방어적 양가성의 요인에는 정서표현에 대한 불능감이 포함되어 있다. 정서표현불능은 정서표현능력이 결여된 상태이므로 대인관계에서 효과적으로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대인관계문제에 더 취약하다(조소영, 김진숙, 2020). 자기방어적 양가성은 방어적이고 회피적인 갈등 양상을 보이므로(최해연, 민경환, 2007), 대인관계 문제의 하위유형인 향함에는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고 맞섬과 멀어짐에는 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다. 반면, 최해연과 민경환

(2007)의 연구에서 관계관여적 양가성은 대부분의 심리증상과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이들은 관계관여적 양가성이 타인을 배려하고 자기중심적인 충동을 억제하는 능력인 자제와 연관성이 클 것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관계관여적 양가성의 특성상 타인과의 관계를 보호하려는 경향을 지니고 있어 자신의 표현 욕구를 잘 통제하고 정서 표현 자체를 부정하거나 회피하려는 경향이 적다(최해연, 민경환, 2007)는 점에서 향함에는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고 맞섬과 멀어짐에는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았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사회부과적 완벽주의는 타인이 자신에 대해 비현실적으로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여기고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낙담하게 되는데, 이는 타인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유발하여 정서표현 갈등을 느끼게 되고 결국 다양한 대인관계문제를 경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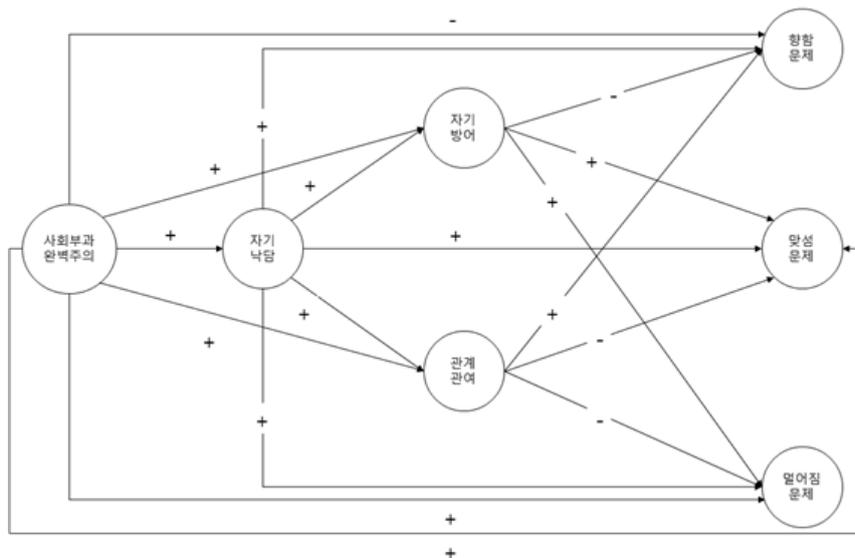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하는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이 연구의 목적은 사회부과적 완벽주의가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낙담과 정서표현 양가성이 매개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하여 자기낙담과 정서표현 양가성이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대인관계문제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면, 대인관계문제를 겪는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성향의 대학생들을 위한 상담 장면에서 내담자의 인지적, 정서적 특성을 함께 이해하고 대인관계에 대한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개입과 전략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방 법

연구대상

이 연구에서는 대구 경북 소재의 대학교에 재학 중인 20대 대학생 420명에게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배부하여 설문지와 연구참여 동의서에 서명을 받고 연구를 진행하였으며(CUIRB-2018-0033), 설문에 응한 대상자에게는 소정의 답례품을 지급하였다 불성실한 응답으로 판단된 64명의 자료를 제외한 총 356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대상자 중 남자는 132명(37%), 여자는 224명(63%)이었으며, 1학년은 96명(27%), 2학년은 125명(35.1%), 3학년은 67명(18.8%), 4학년은 68명(19.1%)이었다.

측정도구

대인관계문제

Horowitz, Rosenberg, Baer, Ureno와 Villasenor (1988)이 개발하고 홍상황, 박은영, 김영환, 권정혜, 조용래, 진유경(2002a)이 번안하고 타당화한 단축형 대인관계문제 척도(Short form of the Korean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Circumplex Scale: KIIP-SC)를 사용하였다. 대인관계문제 척도의 하위요인은 통제지배, 자기중심성, 냉담, 사회적 억제, 비주장성, 과순응성, 자기희생, 과관여 8가지로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의 형식은 5점 Likert 척도 상에서 평정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에서 겪는 어려움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 각 하위영역의 높은 점수는 그 특정 영역에서 대인관계문제를 많이 경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안은화(2012)의 연구와 같이 Horney의 이론을 적용해 그 속성에 따라 대인관계문제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하위요인 중 과순응성, 비주장성, 자기희생은 ‘사람들에게 향함’으로, 통제지배, 자기중심성, 과관여는 ‘사람들에게 맞섬’으로, 냉담, 사회적 억제는 ‘사람들에게 멀어짐’으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홍상황, 박은영 등(2002b)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89로 나타났으며 안은화(2012)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 전체문항이 .93, ‘사람들에게 향함’ .89, ‘사람들에게 맞섬’ .84, ‘사람들에게 멀어짐’은 .90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 전체문항이 .92, ‘사람들에게 향함’ .87, ‘사람들에게 맞섬’ .85, ‘사람들에게 멀어짐’은 .90이었다.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Hewitt와 Flett(1991)이 개발한 다차원적 완벽주의척도(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HMPS)를 한기연(1994)이 번안한 한국판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K-HMPS)에서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하위 척도만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5문항으로 5개의 역채점 문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문항의 형식은 7점 Likert 척도상에서 평정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Hewitt와 Flett(1991)의 연구에서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87로 나타났다. 한기연(1994)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 .82, 본 연구에서는 .86으로 나타났다.

자기낙담

노안영과 정민(2007)이 개발한 자기낙담 척도(Self-Encouragement Scale: SDS)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30문항으로 5점 Likert 척도상에서 평정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낙담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노안영과 정민(2007)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84, 본 연구에서는 .95로 나타났다.

정서표현 양가성

King과 Emmons(1990)가 개발하고 최혜연과 민경환(2007)이 번안 및 타당화한 한국판 정서표현 양가성 척도(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Questionnaire: AEQ-K)를 사용하였다. 정서표현 양가성의 하위요인은 자기방어적 양가성, 관계관여적 양가성 2가지로 총 21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의 형식은 5점 Likert 척도상에서 평정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표현 갈등이 높음을 의미한다. King과 Emmons(1990)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89이었고, 최혜연과

민경환(2007)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 자기방어적 양가성이 .89, 관계관여적 양가성이 .78, 전체 내적합치도는 .90이었다. 본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 자기방어적 양가성 .89, 관계관여적 양가성 .79, 전체 내적합치도 .91로 나타났다.

자료 분석

이 연구에서 제시한 각 변인들 간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쳤다. 첫째, 연구 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하고 측정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를 검증하였다. 둘째, 각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문항꾸러미(item parcels)를 이용하여 측정 모형을 구성하였고,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연구 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델(SEM)을 통한 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각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 팬텀 변인(phantom variable)을 생성 후, 부트스트랩(bootstrap)을 실시하였다.

결 과

기술 통계치 및 주요 변인간의 상관관계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대인관계문제, 자기낙담, 정서표현 양가성간의 상관분석 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대인관계문제는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r = .48, p < .01$ 와 정적 상관이었다. 대인관계문제는 자기낙담 $r = .76, p < .01$ 과도 정적 상관이었으며, 정서표현 양가성 $r = .58, p < .01$ 과도 정적 상관이었다.

표 1. 주요 변인들의 상관관계 및 기술 통계치

변인	1	1-1	1-2	1-3	2	3	4	4-1	4-2
1. 대인관계문제	1								
1-1. 사람들에게 향함	.80**	1							
1-2. 사람들에게 맞섬	.73**	.33**	1						
1-3. 사람들에게 멀어짐	.79**	.46**	.42**	1					
2.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48**	.38**	.40**	.33**	1				
3. 자기낙담	.76**	.71**	.44**	.61**	.58**	1			
4. 정서표현 양가성	.58**	.58**	.31**	.43**	.51**	.68**	1		
4-1. 자기방어적 양가성	.60**	.56**	.36**	.48**	.52**	.68**	.95**	1	
4-2. 관계관여적 양가성	.39**	.48**	.15**	.25**	.37**	.52**	.84**	.63**	1
M	2.42	2.73	2.08	2.46	3.60	2.74	3.23	3.06	3.51
SD	.51	.66	.55	.83	.86	.77	.66	.75	.68
침도	-.24	-.47	-.16	-.44	.13	-.56	-.35	-.49	-.14
왜도	.14	.00	.42	.43	.31	.17	-.12	-.17	-.21

* $p < .05$, ** $p < .01$

었다. 사회부과적 완벽주의는 자기낙담 $r = .58$, $p < .01$ 과 정적 상관이었고, 정서표현 양가성 $r = .51$, $p < .01$ 과도 정적 상관이었다. 마지막으로 자기낙담은 정서표현 양가성 $r = .68$, $p < .01$ 과 정적 상관이었다.

이 연구에 포함된 측정 변인들이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하는지 확인한 결과, Curran, West와 Finch(1996)의 기준에 따라 왜도와 침도의 절댓값이 모두 2와 7을 넘지 않아 정규분포성의 가정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측정타당성 검증

측정변인들의 구성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chi^2 = 642.082$, $df = 254$, $p < .001$ 로 나타났으며 CFI는 .941, TLI는 .930, RMSEA는 .066[90% CI : .059~.072]로 양호한 모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확인적 요인분석의 적합도는 표 2와 같다.

다음으로 측정변인과 잠재변인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수렴타당도와 변별타당도로 확인하였다. 그 결과 변인들의 표준화 요인부하량

표 2. 확인적 요인분석 측정모형의 적합도

	χ^2	df	CFI	TLI	RMSEA [90% CI]
측정모형	642.082	254	.941	.930	.066 [.059~.072]

이 .67~.93로 수용 가능했고, 임계비는 기준 인이 모두 Hair, Black, Babin, Anderson과 수치인 1.97보다 컸으며 이 결과는 $p < .05$ 수 Tatham(1998)이 제시한 .5를 상회하였고, 개념 준에서 유의하였다. 또한 AVE 값은 각 변 신뢰도의 값도 .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수

표 3.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의 요인값

잠재변수	측정변수	표준화계수	C.R.	AVE	개념신뢰도
사회부파적 완벽주의	사회부과1	.67	fix	.57	.86
	사회부과2	.79	12.78***		
	사회부과3	.75	12.21***		
	사회부과4	.77	12.21***		
	사회부과5	.80	12.85***		
자기낙담	자기낙담1	.92	fix	.81	.97
	자기낙담2	.88	26.68***		
	자기낙담3	.90	28.60***		
	자기낙담4	.90	29.08***		
	자기낙담5	.91	29.35***		
자기방어적 양가성	자기방어1	.83	fix	.65	.88
	자기방어2	.76	15.89***		
	자기방어3	.83	17.82***		
관계관여적 양가성	관계관여1	.74	fix	.53	.83
	관계관여2	.75	11.77***		
	관계관여3	.69	11.68***		
향함 문제	향함1	.81	fix	.70	.93
	향함2	.90	19.20***		
	향함3	.80	16.68***		
맞섬 문제	맞섬1	.83	fix	.66	.94
	맞섬2	.81	15.83***		
	맞섬3	.79	15.52***		
멀어짐 문제	멀어짐1	.93	fix	.73	.90
	멀어짐2	.87	22.71***		
	멀어짐3	.75	17.74***		

*** $p < .001$

럼타당도가 확립된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함께 각 변인의 상관관계 또한 .80을 넘지 않아 변별타당도가 확립된 것을 확인하였다(표 3).

구조모형 적합도 검증 및 수정모형 제시

연구모형의 적합도 검증 결과, $\chi^2 = 642.082$, $df = 254$, $CFI = .941$, $TLI = .930$, $RMSEA = .066$ 로 수용 가능한 적합도를 보였다. 다음으로 유의하지 않은 경로를 삭제한 수정모형을 구성한 후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 $\chi^2 = 647.921$, $df = 257$, $CFI = .941$, $TLI = .931$, $RMSEA = .065$ 로 적합도는 양호했으며, χ^2 차이 검증 결과 $\Delta\chi^2 = 5.839$, $\Delta df = 3$, $p > .05$ 로 연구모형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유의하지 않은 경로를 제거한 수정모형을 최종모형을 채택하였다. 최종모형의 결과는 그림 2와 표 4에 제시하였다.

수정모형 매개검증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대인관계문제(향함, 맞섬, 멀어짐)의 관계에서 자기낙담과 정서표현 양가성(자기방어적 양가성, 관계관여적 양가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팬텀변인(phantom variable)을 생성한 후 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원자료($N = 356$)에서 무선 표집으로 생성된 10,000개의 부트스트랩 표본을 모수 추정에 사용하였고, 신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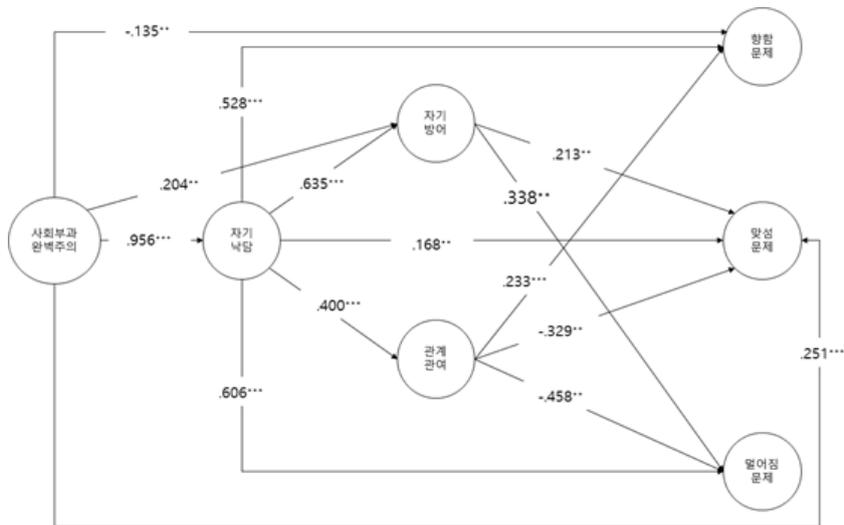


그림 2. 최종 모형의 비표준화 경로계수 및 유의도

표 4. 연구모형 및 수정모형 비교

	χ^2	df	CFI	TLI	$RMSEA$	$\Delta\chi^2$
연구모형	642.082	254	.941	.930	.066	-
수정모형	647.921	257	.941	.931	.065	5.839

간은 95%로 설정하였다. 그 결과 수정모형에서의 간접효과 경로는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아 유의한 개별 간접효과가 확인되었다.

표 5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향함의 관계에서 자기낙담이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505$). 마찬가지로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맞섬의 관계에서 자기낙담이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eta = .161$),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멀어짐의 관계에서 자기낙담이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579$). 또한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맞섬의 관계에서 자기방어적 양가성이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eta = .043$),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멀어짐의 관계에서 자기방어적 양가성이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069$). 다음으로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맞섬의 관계를 자기낙담과 자기방어적 양가성이 순차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129$).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멀어짐의 관계에서 자기낙담과 자기방어

적 양가성이 순차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205$). 또한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향함의 관계에서 자기낙담과 관계관여적 양가성이 순차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089$). 마찬가지로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맞섬의 관계에서 자기낙담과 관계관여적 양가성이 순차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eta = -.126$),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멀어짐의 관계에서 자기낙담과 관계관여적 양가성이 순차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175$).

논 의

본 연구는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대인관계 문제(향함, 맞섬, 멀어짐)의 관계에서 자기낙담과 정서표현 양가성(자기방어적 양가성, 관계관여적 양가성)이 매개하는지를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 다양한 대인관계문제 유형에 영향

표 5. 간접효과 경로

간접 경로	effect	Bias-corrected Bootstrap 95% CI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 자기낙담 → 향함	.505	(.380 ~ .665)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 자기낙담 → 맞섬	.161	(.040 ~ .280)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 자기낙담 → 멀어짐	.579	(.399 ~ .803)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 자기방어 → 맞섬	.043	(.006 ~ .133)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 자기방어 → 멀어짐	.069	(.010 ~ .172)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 자기낙담 → 자기방어 → 맞섬	.129	(.016 ~ .326)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 자기낙담 → 자기방어 → 멀어짐	.205	(.028 ~ .486)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 자기낙담 → 관계관여 → 향함	.089	(.027 ~ .169)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 자기낙담 → 관계관여 → 맞섬	-.126	(-.251 ~ -.044)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 자기낙담 → 관계관여 → 멀어짐	-.175	(-.370 ~ -.043)

을 미치는 성격적 요인, 인지적 요인, 정서적 요인을 확인하여 대인관계문제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키고 대인관계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들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적 개입방법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와 관련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사회부과적 완벽주의는 자기낙담, 정서표현 양가성, 대인관계문제와 정적 상관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특성상 외부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 쉽게 낙담하고(정인철, 2012), 타인으로부터 자신이 수용 받지 못할 것이라는 신념이 두려움과 불안으로 이어져 정서표현 갈등을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으며 그 결과, 대인관계에서 친밀감을 경험할 가능성은 낮아지고 보다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정경아, 2015; 한경희, 2012).

둘째,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대인관계문제 하위유형(향함, 맞섬, 멀어짐)의 관계에서 자기낙담과 정서표현 양가성의 이중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정서표현 양가성의 각 하위요인은 서로 다른 대인관계문제 양상을 보였다. 먼저,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대인관계문제의 하위유형 중 맞섬과 멀어짐의 관계에서 자기낙담과 자기방어적 양가성의 이중 매개효과가 유의했다. 반면,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대인관계문제의 하위요인 중 함함 문제와의 관계에서 자기낙담과 자기방어적 양가성의 이중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자가 낙담하여 자기방어적 양가성을 경험할수록 정서표현 후 초래될 부정적인 결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솔직한 정서표현을 부정하고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순응적이기보다는 적대적이거나 무시를 하는 등의 대인관계문제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대인관계문제 하위유형(향함, 맞섬, 멀어짐)간의 관계에서 자기낙담과 관계관여적 양가성의 이중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대인관계문제의 하위요인 중 함함 문제에는 정적 영향을 미쳤고 맞섬 문제와 멀어짐 문제에는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자가 낙담하여 관계관여적 양가성을 경험할수록 자신이 정서를 표현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고려하여 자신의 의견이나 욕구, 솔직한 정서를 적절히 표현하지 못해 대인관계문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관계관여적 양가성의 특성상 타인을 배려하고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를 중요시한다는 점에서 순응적인 반면, 공격적이고 고립적인 대인관계양상인 맞섬 문제와 멀어짐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은 적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방어적 양가성이 관계관여적 양가성보다 심리적 부적응에 대한 설명력이 더 크며 자기방어적 양가성이 지닌 회피적 경향이 관계관여적 양가성이 지닌 억제 기제 자체보다 병리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최혜연, 민경환, 2007)와 맥락을 같이 한다.

한편, 선행연구에서 관계관여적 양가성은 자기방어적 양가성과 달리 관계를 보호하려는 적응적 측면을 지니고 있어 대인관계에서 직접적인 갈등 양상은 적을 것이라는 결과가 있었다(안선경, 정여주, 2016). 하지만 최혜연과 민경환(2007)의 연구에서 관계관여적 양가성

역시 대인관계 예민성 및 우울과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타인을 배려하고 자신의 표현을 절제하는 경향이 반드시 긍정적으로만 작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경향이 지속된다면 자신의 독립성을 유지하지 못한 채 쉽게 상대방에게 설득, 이용당하고 자신을 희생하게 되는 문제가 초래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는 있지만 적절히 표현하지 못할 경우 대인관계에서 여러 문제들을 경험할 수 있다.

이상으로 본 연구의 논의를 정리하면 사회부과적 완벽주의는 자기낙담과 정서표현 양가성을 통해 순차적으로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자가 자신의 능력을 비난하여 낙담하게 되면, 자신감을 잃고 자신의 정서를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에도 어려움을 느껴 대인관계문제를 촉진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에서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자들의 대인관계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자기낙담과 정서표현 양가성의 수준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음을 확인한 것이 중요하다. Adler (1971; 김현숙, 2020에서 재인용)는 사고와 정서는 언제나 공존해서 수반되며, 사고는 방향을 제공하고 정서는 운동의 힘을 제공한다고 주장했다. King과 Emmons(1990)는 정서표현의 부족 자체보다도 그 이면에 있는 신념을 살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개인의 역기능적인 신념을 다루지 않고 정서만을 변화시킨다면 문제의 근본적인 치료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무엇보다 낙담한 학생들이 역기능적인 신념을 갖고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경직되고 부정적인 신념들은 원만한 대인관계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대인관계 부적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 개인이 지니고 있는 역기능적인 신념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권석만, 1995). 대인관계 문제를 겪는 대학생들에게 초점을 맞춘 개입 방법은 개인의 부적응적인 신념을 찾아내어 바로잡고 대인관계적 상황에서 보다 적응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대인 기술을 훈련하고 향상시키는 일일 것이다. Dunkley와 Blankstein (2000)는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성향을 지닌 사람들이 대인관계에서 겪을 수 있는 심리적 고통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완벽주의 자체를 수정하기보다는 그와 관련된 부정적인 신념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즉,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대학생이 대인관계 문제를 호소할 때, 변화가 어려운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에 대한 개입보다 낙담한 대학생들의 부적응적인 신념을 적응적인 신념으로 수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이러한 치료적 개입으로는 인지적 오류를 발견하여 교정할 수 있는 다양한 인지 치료적 기법과 자신의 정서를 적절히 표현하여 수용을 경험하도록 돕는 방법을 병행하는 것이 대인관계문제 개선과 적응에 유용할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인관계문제에 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에서 인지적 요인과 정서적 요인을 함께 살펴본 연구는 부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연구가 부족했던 자기낙담에 초점을 두어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적 신념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정서표현 양가성이라는 정서적 요인과 사회부과적 완벽주의라는 성격적 요인을 함께 고려하여 대인관계문제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켰다.

둘째, 개입이 어려운 성격특성인 완벽주의 대신 개입이 용이한 심리적 기제들을 확인했다. 이는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자체를 변화시키기보다는 자기낙담과 정서표현 양가성에 대한 치료적 개입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대인관계문제를 ‘사람들에게 향함’과 ‘사람들에게 맞섬’ 그리고 ‘사람들에게 멀어짐’의 세 가지 하위 유형으로 세분화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비교적 명백한 유형에서 나타나는 일련의 행동체계나 반응, 신념 등의 기능과 구조를 살펴봄으로써 다소 불명확한 대인관계문제를 보다 구체화할 수 있었다. 이는 대학생의 대인관계문제를 보다 다양한 측면으로 이해하고 개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초기 성인기에 해당하는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를 다른 연령대 사람들에게 일반화하기엔 제한이 따를 수 있다. 그러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연령대의 대상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대인관계문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만을 다루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대인관계문제를 줄여줄 수 있는 보호요인에 관해 탐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대인관계문제를 유발하는 심리적 요인을 밝혀냈지만 이를 상담에서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구체적 개입방법을 제시하진 못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 질적 연구를 통해 효과적인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 및 적용한 후, 이들 프로그램의 효과를 밝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권석만 (1995). 대학생의 대인관계 부적응에 대한 인지행동적 설명모형. 서울대학교 학생연구, 30(1), 38-63.
- 권석만, 김지영 (2002). 자기 및 타인 표상과 대인관계 문제의 관계.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1(4), 705-726.
- 김옥경 (2013). 정서표현에 대한 정서관련태도와 정서표현갈등의 영향.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현숙 (2020).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에 미치는 영향-자기낙담과 자기격려의 매개효과-. 한국콘텐츠학회, 20(4), 475-486.
- 노안영, 정 민 (2007). 자기 격려-낙담 척도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3), 675-692.
- 민지현, 이아라 (2015). 대학생의 자기낙담과 대인관계문제의 관계에서 정서표현양가성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9), 77-94.
- 방혜연 (2010). 기능적 완벽주의와 역기능적 완벽주의에 따른 자기상이 대인지각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선경, 정여주 (2016). 대학생의 거부민감성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정서표현양가성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8(3), 719-741.
- 안은화 (2012). 대학생의 분리-개별화가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자동적 사고의 매개효과.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혜영(2018). 대학생의 심리적 위기 실태. 국회 교육희망포럼.
- 이승미, 오경자 (2006). 정서인식불능, 정서표

- 현에 대한 양가감정, 정서표현성이 중년 기혼 여성의 심리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5(1), 113-128
- 이주일, 황석현, 한정원, 민경환 (1997). 정서의 체험 및 표현성이 건강과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1(1), 117-140.
- 이주희, 서은숙 (2019).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대인관계문제의 관계: 역기능적 신념과 정서표현 양가성의 이중매개효과. *한국콘텐츠학회*, 19(8), 641-652.
- 이희경, 윤 인, 이해라, 조한익 (2006). 신경증적 갈등에 대한 카렌 호나이의 정신분석. 서울: 학지사.
- 전명임 (2009). 다차원적 완벽주의와 우울,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유대감의 매개효과.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경아 (2015). 정서표현양가성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의 매개효과.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옥경 (2001). 완벽주의 성향이 불안과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인철 (2012). 평가염려 완벽주의와 우울의 관계에서 자기격려, 자기낙담, 사회적 유대감의 매개효과.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혜진 (2014). 대학생의 대인관계문제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경험회피와 정서표현양가성의 매개효과.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소영, 김진숙 (2020). 아동기 외상과 초기 성인기 대인관계문제 간의 관계에서 초기부적응도식과 감정표현불능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7(3), 323-352.
- 지서현 (2016). 정서표현신념과 대인관계문제의 관계: 정서표현양가성의 매개효과.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해연 (2005). 정서표현에 대한 부정적 신념의 구조와 기능.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4(1), 239-257.
- 최해연, 민경환 (2007). 한국판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성 척도의 타당화 및 억제 개념들 간의 비교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1(4), 71-89.
- 한경희 (2012). 대학생의 사회부과적 완벽주의가 내면화된 수치심과 정서표현양가성을 통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기연 (1994). 다차원적 완벽성: 개념, 측정 및 부적응과의 관련성.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정원 (1997). 정서표현성이 건강 및 주관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상황, 박은영, 김영환, 권정혜, 조용래, 진유경 (2002a). 한국형 대인관계문제검사의 타당화.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1(2), 391-411.
- 홍상황, 박은영, 김영환, 권정혜, 조용래, 진유경 (2002b). 한국형 대인관계문제검사 원형척도의 단축형(KIIP-SC) 구성.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1(4), 923-940.
- Beck, A. T. (1983). Cognitive therapy of depression: New perspectives. In P. J. Clayton & J. E. Barrett (Eds), *Treatment of depression: Old Controversies and New Approaches* (pp.

- 265-284). New York: Raven Press.
- Beck, A. T. (1984). Cognition and therapy.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1(11), 1112-1114.
- Beck, A. T., Rush, J., Shaw, B., & Emery, G. (1979). *Cognitive Therapy of Depression*. New York: Guilford Press.
- Beck, A. T. (1967). *Depression: Clinical, Experimental, and Theoretical Aspects*. New York: Harper & Row.
- Curran, P. J., West, S. G., & Finch, J. F. (1996). The Robustness of Test Statistics to Non normality and Specification Error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1(1), 16-29.
- Dunkley, D. M., & Blankstein, K. R. (2000). Self-critical perfectionism, coping, hassle, and current distress: 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roach.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4(6), 713-730.
- Eills, A. (1962). *Reason and Emotion in Psychotherapy*. New York: Lyle Stuart and Citadel Press.
- Gross, J. J., & John, O. P. (2003). Individual differences in two emotion regulation processes: Implications for Affect, Relationships, and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5(2), 348-362.
- Hair, J. F., Black, W. C., Babin, B. J., Anderson, R. E., & Tatham, R. L. (1998). *Multivariate Data Analysis* (5th ed), Upper Saddle River, NJ: Prentice hall.
- Hewitt, P. L., & Flett, G. L. (1991). Perfectionism in the self and social contexts: conceptualization, assessment, and association with psychopatholog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3), 456-470.
- Horowitz, L. M., Rosenberg, S. E., Baer, B. A., Ureno, G., & Villasenor, V. S. (1998).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 Psychometric properties and clinical application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6), 885-892.
- King, L. A., & Emmons, R. A. (1990). Conflict over emotional expression: Psychological and physical correlat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5), 864-877.
- Lingg, MaryAnn & Wilborn, Bobbie (1992). Adolescent discouragement: development of an assessment instrument. *Journal of Adlerian Theory, Research & Practice*, 48(1), 65-75.
- Mahoney, M. J. (1974). *Cognition and Behavior Modification*. Cambridge, Oxford, England: Ballinger.
- Meichenbaum, D. H. (1977). *Cognitive Behavior Modification*. New York: Plenum Press.
- Mongrain, M., & Vetteuse, L. C. (2003). Conflict over Emotional Expression: Implications for Interpersonal Communicat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9(4), 545-555.
- Pennebaker, J. W. (1985). Traumatic experience and psychosomatic disease: Exploring the roles of behavioral inhibition, obsession, and confiding. *Canadian psychology*, 26(2), 82-95.
- Sullivan, H. S. (1953). *The Interpersonal theory of Psychiatry*. New York: W. W. Norton.
- 원고접수일 : 2021. 04. 19.
수정원고접수일 : 2021. 06. 01.
게재결정일 : 2021. 06. 23.

The Effect of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on Interpersonal Problems: The Double Mediating Effect of Self-Discouragement and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Hae-Ryeong Lee

Eun-Young Park[†]

Department of Psychology, Daegu Catholic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 of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on interpersonal problems and the double mediating effect of self-discouragement, and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For the purposes of this study, data from 356 college students were collected and analyzed using SPSS 22.0 and AMOS 22.0.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had positive effect on interpersonal problems, self-discouragement and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2) self-discouragement and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had a double mediating effect between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and interpersonal problems; (3) it was revealed that different features of ambivalence (which are sub-factors of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have an impact on different interpersonal problems, and self-defense ambivalence has a greater degree of experiencing interpersonal problems than relational ambivalence. Based on these results, the implications, study limitations,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Key-words :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interpersonal problems, self-discouragement,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 This study is a revision and supplement to the 2019 Master of Psychology thesis of Catholic University in Daegu, and was published as a poster at the 2019 Spring Conference hosted by the Korean Society of Clinical Psychology.

[†] Correspondence to Eun-Young Park / Department of Psychology Daegu Catholic University / (38430) 13-13 Hayang-ro, Hayang-eup, Gyeongsan-si, Gyeongsanbuk-do / E-mail : eyp0202@cu.ac.kr